

추모 발원문

극락세계에 계시어 중생을 이끌어 주시는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오니, 상서로운 빛으로 널리 앞길을 열어주소서.

세연을 다하여도 이견희 회장의 선근인연 뚜렷하니,
함께 기리는 것으로 무명은 허물없이 사라지고,

원각의 묘한 마음 크게 열리어, 지극한 공덕의 광명이
그대로 나타날 지이다.

일평생 인류의 삶이 풍요롭기를 희망하여 실천한 용기있
는 도전은 사회와 사람의 유익함에 다다르고,

대한민국 경제 창달과 국가의 가치 상승에 주춧돌이자
기둥으로 기여하였으니, 손손대대로 성취를 이룰 지이다.

선망부군 광명으로 나날이 봉사와 정진을 다하여,
심신은 더욱 청정하고 강건하며,

사업은 화평하고 순창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상서로
운 광명이 항상 함께 하여지이다.

이제 아름다운 공덕행을 쌓았으니, 화신불의 영접 받아
극락정토에 왕생하리라.

이승의 미련은 모두 떨어 버리시고 아미타 연꽃에서
무생법인의 법락을 편안케 누리소서.

인연 맺은 사람들이 아미타불의 깊은 가피로 극락왕생을
발원하오니,

부처님 인연으로 온갖 중생에게 베풀어 일체 종지가
이루어지이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불기2564(2020)년 12월 05일